산감을 기다리며
〈山監〉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전국의 산지에서 발생한 산불에 제16교구본사이자 천년고찰인 고운사가 소실됐다. 고운사뿐만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산불에 의성 운람사도 전각이 전소됐고, 그 외에도 경북과 경남의 산불 확산 지역에 위치한 여러 전통사찰들이 여전히 산불로 인한 재난 위기에 처해 있다.

산불이 사찰을 전소시킨 사례는 역사 기록에도 자주 등장한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기록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에 집중돼 있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사찰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조선시대 사찰의 기록에 화재로 인한 재난 기록이 많다. 그 이전 시대의 사찰들이 대부분 도성 안이나 시가지에 있었던 것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도성 안의 사찰이나 지방 중심지에 있었던 사찰들을 대부분 폐사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중의 큰 사찰과 부근의 사암들을 중심으로 불교 전통이 이어졌다. 하지만 조선 중기나 후기의 산중 사찰들은 산간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쉽게 산불에 노출됐다. 하지만 실화(失火)로 인한 소실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는 화전민들의 화전 개척 과정에서 일어난 실화도 산불의 원인이 되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조선시대의 사찰들은 화재에 취약한 점이 많았다.

결국 대부분의 사찰은 화재로 인한 소실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여러 비책을 강구하곤 했다. 해인사에서는 단오날에 사찰 안팎에 소금을

영남 산불로 여러 고찰들 피해
조선代 사찰 산감 둬 관리케 해
산사·산림, 한 묶음…보존 터전

비치하고 매화산 남산제일봉에 소금단지를 묻는 의례를 벌써 200년 넘게 행하고 있다. 통도사 역시 매년 단오에 각 전각 지붕 밑 평방 위에 '염불화방지병(念不火防之甁)'이라는 이름의 소금단지를 올려서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기고 있다.

단순히 의례이고 상징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화재에 약한 산지 사찰의 특성상 적어도 사람의 실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마음을 절 안의 대중 모두에게 되새기는 역할을 했다.

그런 정성을 알고 있었기에 조선의 왕실은 사찰 주변의 산림을 관리하고 가꾸고 보존하는 역할을 스님들에게 맡겼고, 스님들은 산감(山監)이라는 직분을 따로 두어서 관리와 보존의 소임을 담당했다. 얼핏 보면 단순히 사찰과 사찰 주변 산림의 관리와 보존인 것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이란 전통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그냥 아늑해서가 아니다. 흉년이 들면 먹거리를 내어주고, 추위가 들면 땔거리를 내어주는 삶의 밑천을 내어주는 곳이 산이었기 때문이다. 그 산이, 사찰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스님들을 품고 있는 산이 온전해야만 인근의 사람들도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고, 추위를 면할 수 있었다. 결국 스님들이 살아가는 사찰 자체가 산감(山監)이었던 셈이다.

산중에 있는 전통사찰들은 그 주변의 산림과 한 묶음이다. 그리고 그 한 묶음이 스님들에 의해 관리되고 보존됨으로써 풀이며 나무며 짐승이며 사람에 이르기까지 함께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었다. 오늘 그 소중한 삶의 터전 한 자락이 무너지고 있다.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사찰 그리고 스님들의 수행 터전만은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기억하고 또 가꾸고 보존해야 할 터전이다. 그 소중한 터전이 오롯이 본래 모습을 되찾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사회적 연대는 치유의 힘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요즘 우리 사회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혐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마음에 큰 동요가 일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안정을 이루는 길이다.

아이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속에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때, 그 마음에는 편안함과 신뢰가 자리 잡게 된다. 반대로, 부모의 잦은 다툼이나 경제적 어려움, 혹은 학대가 있는 환경에서는 아이가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라나기 쉽다.

어린아이는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부모(혹은 양육자)가 그 감정을 받아주고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불안과 좌절을 어머니가 품어주고, 소화하여 다시 부드럽게 돌려주는 과정이 반복될 때, 아이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며, 자신은 존재만으로도 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키워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안정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환경과 깊이 연결돼 있으며, 안정된 공동체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사회가 안정되고 신뢰가 두터우면 개인은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갖지만,

사회 혼란할수록 무력감 높아져
서로에 의지처 되는 분위기 필요
종교공동체 등 연결의 장 마련을

사회가 불안정해질수록 위축되거나 의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수록 국민은 불안, 분노,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를 잡는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유대가 약해지면, 우리의 정신적 회복력도 함께 떨어지게 된다. 이런 감정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일상에서 기쁨을 찾기 어려워지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더해지며 생산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마음의 평온을 회복해 나가는 일이다.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나누거나, 글쓰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더불어,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를 보듬고 지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와 지역 사회는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종교·명상공동체나 지역 커뮤니티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장을 마련하자.

부처님께서는 〈자애의 경〉에서 "모든 님은 행복하여지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지 않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서로를 감싸는 따뜻한 울타리, 함께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다. 작은 연등 하나를 밝히듯, 서로를 위한 온기를 더해 나아가자!

社 說

산불 피해 지원·복구에 힘 모으자

지난 3월 22일 성묘객의 실화로 확산된 영남지역 산불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라도 오면 좋으련만, 날씨마저 도와주질 않고 있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2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산불의 영향구역은 3만3204ha로, 2000년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2만3794ha)을 넘어섰다. 3월 27일 오후 2시 기준 인명 피해는 사망 27명, 중상 8명, 경상 22명 등 총 57명으로 집계됐다.

사찰의 피해도 잇달았다. 무엇보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이자 천년고찰인 의성 고운사의 전소 소식은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전각 30동 중 21동이 소실돼 완전 전소는 아니었지만 보물로 지정된 가연루, 연수전이 모두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대웅보전이 화마를 피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산불 피해가 확산되자 불교계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모금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본지와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공동으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더프라미스 등은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과 모금을 병행 중이다.

재난 속에 빛나는 것은 구성원 간의 연대다. 서로에게 의지처가 될 수 있어야 지금의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 영남 산불의 조속한 종식을 기원하며, 피해 지역이 안정된 일상을 찾을 수 있길 기원한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가치 충분하다

한국불교만의 생명존중사상이 담긴 식문화인 '사찰음식'이 신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가유산청은 3월 21일 사찰음식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 1달이 남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정은 확실시 되어 보인다.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특히 불살생의 불교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파·부추·달래·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사찰음식은 단순한 채식음식이 아니다. 불교의 불살생 계율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한 것이 사찰음식이다. 이는 한국불교만의 고유한 식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사찰음식이 담아내고 있는 생명존중과 절제의 철학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가족이나 주한대사 부인들이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연신 '원더풀'을 외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우리 국민들의 심신건강 증진 및 한식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80차 중앙종회 성료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도정 스님)는 3월 24일 서울 일붕선원에서 제80차 중앙종회를 열고 2024년 결산보고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4월 2일
일붕선교종 종회의장 도정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4월 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4월 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